

캐리커처(Caricature)에 나타난 복식의 해학 -조오지왕조 시대를 중심으로-

김 경 희

서일대학 의상과

현재 거대한 산업으로 형성되어온 만화의 이미지는 상업광고나 정치선전, 공공홍보 등에서 만화의 매체적 특성을 이용해 많은 효과를 얻고 있으며 복식에도 많이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만화의 선두자인 조오지왕조 시대의 캐리커처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유행되었다. 캐리커처의 어원은 Caricare라는 이탈리아어로 '신는다' 또는 '덧붙인다' 라는 의미로 1646년 이탈리아의 화가인 마시니(Masini)가 그린 "일그러진 얼굴"을 캐리커처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1770년대 이후 약 100여년간 나타난 캐리커처는 현대 만화의 선두주자로 사회적 풍자 중 특히 패션 캐리커처는 오랜 기간을 통해 전 세계 패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캐리커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조오지왕조 시대를 중심으로 캐리커처에 나타난 복식의 해학성을 분석함으로써 조오지왕조 시대의 생생한 의상 스타일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패션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사회적 현상을 간파해 패션의 본질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범위 및 방법은 조오지왕조 시대로 제한하였으며, 문헌연구 방법으로써 국내외 단행본과 학위논문 그리고 박물관의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조오지왕조 시대의 캐리커처에 나타나는 패션은 사회적 해악의 본질로 간주되어 특히 챗바퀴 도는 듯한 패션의 무용성을 부르짖었으며, 상류층의 패션에 대한 신랄한 도덕적 비판과 재미는 캐리커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캐리커처에서 전달하려는 것은 인위적으로 꾸며낸 패션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신체 형태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자연이 진실, 성실, 아름다움, 그리고 형태적 항구성을 의미하는 반면, 패션은 인공, 불성실, 일시성, 그리고 에로티시즘이라는 메세지로 풍자되었다.

캐리커처의 목적은 보통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을가를 밝히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장식으로 과장된 헤어스타일과 부풀린 가슴, 둔부의 외곽선, 오르내리는 허리선 또는 단단히 조인 코르셋 위의 옷감 형태와 같이 구체화되었던 패션에 관한 건축적 아이디어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캐리커처에 나타난 복식의 해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체의 자연적인 상태와 화려한 패션의 비틀린 형태를 비교하여 패션 자체가 이상적 허구

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패션과 이상적인 육체의미를 대비시킨 패션의 과장된 모습을 풍자하였다. 또 인조 가슴과 인조 엉덩이로 신체를 가장하여 화려한 의상을 통하여 성적 매력을 드러내고, 투명한 옷감 안으로 선명히 보이는 가슴과 유두의 노출을 통하여 에로티시즘을 풍자하였다.

다양한 사회 계층의 헤어스타일은 의인화를 통하여 풍자하였으며, 깃털장식이 달린 거대한 머리장식을 한 아름다운 귀부인들이 마치 닭장 안에 갇힌 닭처럼 마차를 타고 가는 캐리커처를 통해서 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였던 패션의 추종자들을 풍자하기도 하였지만 이것은 실제로 우리 안에 갇혀 팔려 가는 동물들처럼 혼인 시장의 금전적 성격에 대한 암시를 나타내었으며, 또 젊은 여성들을 위한 계몽문학의 일원으로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야외스포츠에 참여하는 캐리커처를 통하여 일반적인 여성의 의무와 가치를 거부하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패션과 행동양식의 연관성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그 시대의 사회상을 잘 알 수 있는 시사성에 대하여 풍자하였다. 또 여성복식의 가운데라인이나 옷감의 무늬, 장식 등에 관한 당시 스타일의 걸차레와 과소비 등의 다양성을 묘사하여 자연질서를 왜곡하는 패션의 인공성을 풍자하였다.

이러한 캐리커처에 나타난 패션의 해학은 한쪽으로 치우친 이상적 패션의 허구성을 향한 비평을 제공하였으며 이것을 개념화시키는 데에 공헌하였다.